

투데이 칼럼

셀프 리더십(Self Leadership)

‘Lead’는 말의 의미가 Listen(듣고), Explain(설명해 주고), Assist(도와주고), Discuss(상의하는)는 머릿글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알아보면 리더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자극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한 방향을 향해 전력을 다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

그러므로 최고 리더는 우선 자신이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부하 직원도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따르게 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더에게는 다음의 자질과 능력이 필요하다. 첫째 자신의 업무와 관련분야의 실정에 관해 잘 알아야 한다.

둘째 시대의 흐름이나 소비자의 동향 등에 관해 항상 공부하고 이해해야 한다.

셋째 리더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직원 각자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과 목표 등을 알아야 한다.

넷째 이를 통해 부하직원과 함께 비전 목표, 전략과 성취감을 공유할 수 있다.

다섯째 상사와 사장을 리더하고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여섯째 말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있고 '강인함'과 '부드러움'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갖춘 사람으로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실천한다. 일곱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정당당'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는 명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질을 의미한다. 진정한 리더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쉽게 만날 수 있으며 제때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공적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모든 일을 단순화하고 낙관적이다. 긍정적이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이다.

우리는 직장에서 업무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는 편이 좋은 일,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리더는 무엇을 할까? 라는 효과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관리자는 어떻게 할까? 라는 효율을 쫓는 사람이다. 리더의 권위를 쌓으려면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능력'과 '경영 능력', '인간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재능과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0대는 활력(vitality)으로 용감하게 도전하라는 뜻이다.

30대는 전문성(specialty)으로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최소한 가지 가능하면 여러 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40대는 독창성(originality)으로 자신만의 리더십을 완성하라는 뜻이다.

50대는 인간적 능력(personality)으로 이 능력은 젊을 때부터 만들어야 하지만 50대에 이 능력을 어느

정도 완성해야 한다. 물론 이 능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익혀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연령대별로 나누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미국 남가주대학교 '워런베니스' 교수는 '리더는 만들어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자기계발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의지를 갖고 매일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 누구나 신뢰를 바탕으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헌신을 이끌어내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성공한 리더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판단능력, 판단력, 신뢰, 투명성, 적응력 등 다섯 가지를 갖추는데 게을리 하지 말자.

인간의 99%는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다고 하니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자기계발에 앞장설 때 성공한 리더가 되어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다.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쉽센터링 대표



사설

예산 확보를 위한 힘찬 행보 기대

국가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복권의 사업비가 10%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예산 증액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관에 오히려 삭감이라니 어이가 없다. 그 10% 삭감이 대별로 나누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미국 남가주대학교 '워런베니스' 교수는 '리더는 만들어 것'이라고 했다.

그러서 하는 말인데 전복도는 예산 확보를 위해 힘찬 행보를 보여야 한다. 기재부의 처분만 바랐다가는 연말에 가서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게 뻔하다. 저번에 송하진 도지사가 여러 번 말한 바 있는 지역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위해서 힘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요청해온 것인데 여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개탄스런 일이다. 전복도는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그런데 그 매진의 힘은 예산 확보로부터 시작된다.

전복의 낙후를 생각하면 예산 증액 요구는 당연하고도 당연하다. 8조원 예산이라도 부족하고 9조원 예산이라도 풍족을 말할 수 없다. 지역 발전 매진 발언은 지난날에도 여러 번 반복했던 바이지만 지금은 정서가 다르다. 지역 발전 매진과 관련해 주민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지역 발전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복도가 예산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다면 그 행보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7조8641억원의 예산 증액 확보는 고사하고 현상 유지나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전복도는 예산확보에 힘내야 한다. 재무 찾기와 아울러 재무 지키기도 확실히 해야겠다. 자칫했다가는 연말에 가서 예산이 동결되는 수준이 될지도 모른다. 전복도는 큰 두통거리를 두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여기 다시 말하거니와 전복도는 도민의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 다들 목도하는대로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그래서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에게 주는 도민들의 주문은 한결 같다. 예산 확보에 실력 발휘를 해달라는 것이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 고민해야

전복도는 인구 감소를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전복도가 이 어려운 때에 희망의 근거가 돼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희망의 근거가 되어 주지 못하면 인구 감소가 계속될 게 뻔하다. 정부가 군산을 위기 특별지역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지만 피부에 느껴지는 효과는 미미하다. 나쁜돈을 풀어서 군산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나타냈지만 난항의 연속이다. 고공 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게 단지 군산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른 지역은 우리 전복의 경우보다는 낫다. 경남 쪽만 해도 5곳이나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거제시와 통영시와 고성군 그리고 창원시의 진해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의 동구가 바로 그렇다.

거듭된 경제 위환으로 불만이 가득하다. 바라는 일자리 창출이 적으니 왜 아니 그러겠는가. 전복도는 힘을 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안 좋은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는데 전력투구하지 않는 것은 기대박이다. 해결해야 할 일거리가 산더미라 그러리라는 짐작이지만 더 다급한 쪽에 전복도는 팔사매를 걸어 부쳐야 한다. 전복도는 자존을 말하고 재무 찾기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저번에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이런 식이라면 곤란한 일이 계속될 터이다. 그 곤란한 일이란 바로 인구 감소가 아니고 그 무엇이었는가. 도민의 바람과는 반비례하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니 참으로 난감하다. 지금 전복도가 이루 아낼 목표는 뚜렷하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이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일자리 마련이 잘 안된다면 젊은이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전복도는 도내 인문사들의 인구 동향 보도에 민감해야 한다. 올해 1/4분기만 해도 수천 명의 인구가 유출됐다. 전복도 인구 감소와 관련해 긴장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전복도는 군산 살리기와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군산에 지원된 금액은 그 피해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켓 수준일 뿐이다. 전복도는 저번에 투 트랙 전략으로 돌파구를 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의 발언이라도 도민들은 마음이 급하다. 전복도의 그 전략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지 확인해줄 일이다. 도민들은

기고문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은 계속 돼야

최근 전복청에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해택은 국민에게" 등의 현수막을 걸면서 수사구조 개혁의 염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수사구조 개혁이 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원리 중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있다. 이는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음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번번이 실패하였다. 조정에 동의는 하지만 기득권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은 어디에도 견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히 영장 단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도 검사에게 청탁하거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영장청구를 막는다면 사건이 완전히 왜곡될 위험이 있으며, 그 외에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부당 수사의 통로가 되는 역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고, 전·현직 검사들의 부정·비리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도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 때문이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모두가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국민이 바라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수사구조 개혁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정철진 고창서 수사지원팀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링컨 기념관 하늘 수놓은 축하 불꽃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상공으로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